

2016년 부활절 주일 메시지(광주 7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1-58

요절: 고린도전서 15: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말씀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는 잘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 지식을 통해 쉬 믿어지지만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여간해서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셨다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등등 총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을것이 많으면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뷔페집에 가면 일반 식당보다 먹는 시간이 깁니다. 오늘 말씀도 풍성하다보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신기한 세계를 깊이 알아보고자 하는 소원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교회내에 있던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활의 복음을 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만이 모든 인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오늘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여 모든 인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받고 남은 천성까지의 길이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그리스도의 부활 (1-11)

1-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복음의 중심 내용과 부활의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니까? 사도행전 18:1-11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최대의 상업과 무역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헬라철학이 성행하고 음란과 방탕이 활개를 쳤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했습니다(고전2:1-3). 이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행18:8). 고린도 형제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희과 풍조, 현실문제로 인하여 처음 받은 바 복음진리를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고 있었습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내용의 깊이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세상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복잡한 이론을 연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공부를 통해서 배운 단순한 복음진리를 매일 새롭게 하고 굳게 붙잡을 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4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사”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얼마전에는 에너지 자원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물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앞으로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간 내면의 죄문제입니다. 인간은 자원이 부족하여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기 보다는, 죄로 인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문둥병과 같아서 인간을 추하고 더럽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여져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부정하고 무자비하게 하고, 폭력과 부정부패가 난무하여 황폐케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고 죄의식과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죄의 삶으로 죽게 됩니다(롬6:23a).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히9:27). 이 심판은 가법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희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해야 하는 실로 무서운 심판입니다(계21:8). 이 죄 문제는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도 등과 같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만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사흘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하나의 슬픈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만에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낸바 되셨으나 무덤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선이 패배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인간을 그토록 괴롭히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또 다시 죽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은 다른 사람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주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성경대로'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사" 이는 갑자기 이루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머리 좋은 인간이 공교히 만들어 낸 허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문한 빌라도가 가이사 황제에게 낸 「빌라도의 보고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인이 없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5-8절을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들은 모두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 둘만 있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무려 500여명 이상이 됩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증인들의 변화된 삶은 부활의 증거를 더욱더 확실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겐지종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수천명 앞에서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행2장) 예수님의 못박힌 손과 허리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의심의 대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변화하여 인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Saint Thomas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 많은 자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소시민적인 자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역사창조자로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변화된 증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이사야 목자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전 너무나 소심하여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셨다고 합니다. 음악선생님이 목자님의 조금 큰 입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상처가 되어 노래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면이 담대하여져서 말씀을 아주 잘하시고, 또 아주 포인트있게 하시고, 또 큰 입으로는 예배 때 하나님을 큰소리로, 그것도 솔로로 찬양하는 아주 은혜로운 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는 사도 중에 지금껏 작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극렬히 핍박하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마저도 바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원수 바울이, 교만하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 가장 많이 수고하는 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겸손한 은혜의 종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살기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고, 고린도 성도들도 믿게 되었습니다(11).

II. 죽은 자의 부활 (12-34)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다고 분명히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많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 또한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데도 고린도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였습니다. 오늘날도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자들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다. 지난주 금

요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직장에서 계란을 삶아다가 음료수와 함께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계란을 먹어야 하나가 들어주기는 하는데 쉽게 믿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13).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이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둘째, 우리의 진파하는 것이나 믿음도 헛되게 됩니다(14,15a). 우리가 믿고 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사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이를 받치고 있는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것이 헛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증인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 중에서도 최고 거짓말쟁이요, 사기꾼 중에서도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또 우리가 피싱을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최대의 사기 행각에 불과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능력자로 발견됩니다(15b).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자가 되어 버립니다. 니체가 말한대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선이 악에게 패배 당해하나님은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넷째,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17).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는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은혜도 헛되게 되어 버립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활이 없으면 신자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됩니다(18,19). 18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초대교회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신자라는 이유 하나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오직 부활의 소망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억울한 죽음이 될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사도바울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오직 이땅에 속한 것 뿐이라면 모든사람이 다 불쌍한데 그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은 더욱 불쌍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노나니" 힘이 있을 때 놀자고 합니다. 이는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에서 사는 날 동안이라도 좀더 잘 먹고, 잘입고, 짧고 굵게, 멋있게, 마음편히 사는 게 꿈입니다. 진정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불신자들과 구별이 되어 남들이 즐기는 세상 잔재미 따져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로스쿨 시험준비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세진목자님이 불쌍합니다. 작년에 실패를 맞아야서 올해는 어찌하든지 합격해야 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가운데서도 목요일 학생회모임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환경을 예비하는 모습이 불쌍합니다. 또 치전원 그 바쁜 생활가운데서도 10살이나 어린 학생회 양들을 섬기고 있는 야곱목자님도 불쌍합니다. 은퇴이후에 동기들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전 세계를 누비며 쿠루즈 여행이라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은퇴하시자마자 새벽마다 약간 칙칙한 지하에서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의자정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동안 60평생 애들 뒷바라지 하셨으면 되었지... 또 우리 목자들 뒷바라지를 하시는 아브라함 목자님이 불쌍합니다. 어거스틴 목자님도 큰 뜻을 두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셨지만... 자세히 보니까 40대 실직한 가장...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아닙니까?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장 자살율이 높은 군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세진,유진,하진이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고민만 해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고칠까... 음향시설, 카메라, 컴퓨터 등등 다 고치는 어거스틴 목자님이 불쌍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가정을 통해 우리 신앙에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정처럼 정말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수고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어 모든 눈물을 그눈에서 씻겨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몇 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고통하는것도 아픈것도 다시 있지 않게 하십니다.(계 21:4)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장래가 확실히 보장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는 이 부활신앙에 관계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어 드릴 열매들의 보증이 됩니다. 감나무가 자라 감꽃이 피고 탐스러운 첫 단감 열매가 열린 것을 보면 농부들은 “야, 내년에도 이처럼 좋은 단감들이 계속해서 열리겠구나” 하며 희망에 부풀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해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의 부활이 어떻게 모든 신자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까? 21,22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결과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세력에 지배당하여 죽게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원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24-28절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장차 일어나게 될 우주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개인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장차 우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최후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때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때에 비로소 죄로 인해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고 새 땅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바울의 실제 삶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그는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수 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또 세 번 파선하여 하루 밤낮을 바닷물 속에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많은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에 온 힘을 다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용감해서입니까? 통뼈여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뛰어난 인간 조건과 배경으로 세상에서 잘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존경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여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빌3:10,11). 그가 이 부활의 권능을 덧입었을 때 외적인 어려움이 나 본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고 불사조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이 없을 때 쾌락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쾌락주의는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바울을 볼 때 그도 유익을 구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손해를 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을 느낄 때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꺼려합니다.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내가 잘못되거나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쾌락도 즐기고 적당히 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현명한 것 같으나 실상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국민학교 산수는 잘하지만 고등수학은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는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속기 쉬운 악한 동무들은 친구처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믿음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로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고 적극적으로 깨어서 의를 행하길 기도합니다. 이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III. 부활의 영광(35-49)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물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우리는 예복자님을 통해 부활을 받아들이 수밖에는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시간은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즉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해주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이는 그 질문이 부

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기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사실 송중기나 송혜교 같이 잘생기고 예쁘다거나 이세돌처럼 머리가 좋거나... 이분들은 다시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면 좋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은 이대로 부활한다면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미 자연 속에 부활의 개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통찰력있게 대자연속에 있는 부활의 개념을 발견하고 육체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네가 뿌리는 씨”, “네가 뿌리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대다수가 씨 뿌리는 경험이 있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씨를 땅속에 묻습니다. 그러면 씨는 땅속에서 마치 시신처럼 썩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지를 뚫고 새로운 생명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죽음의 세력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는 죽음은 부활의 전제조건이요 필수 과정이지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농부는 작고 볼품없는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은 후의 장래의 형체는 어떻게 됩니까? 크고 아름답고 멋지고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도 예전의 못나고 한계를 지닌 육체를 다시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나와 같은 연속성을 갖고 있으나 차별성이 있는 ‘업그레이드된 형체’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부활의 몸을 덧입을 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각 씨에게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형체를 주셨듯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와 물고기의 몸이 있습니다(39). 하나님은 각 처소에 맞는 몸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합당한 몸을 주셨고 새들에게는 하늘에서 살기에 적절한 날개와 깃털을 주셨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헤엄치며 살 수 있는 부레와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주셨습니다. 우주에 있는 해, 달, 별들에게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맞는 크기와 중력과 빛을 가지게 하셨습니다(40,41).

그러면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몸으로 변형되는 것입니까? 42-4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현재 우리 인간의 몸은 썩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님은 세상의 썩을 일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썩을 놈”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20대에 한창 꽃 피우다가 30대가 되면 벌써 늙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머리에서 흰 것이 보이는가 하면, 저처럼 이마가 갑자기 넓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자매님들은 턱밑살이 생겨나고 눈가에 잔주름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앞집 할머니나 뒷집 할머니나 그 할머니가 그할머니로 하향 평준화가 이뤄집니다. 썩을 몸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합니까? 이렇게 인간은 언젠가 썩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욕됩니다. 누구나 영광스러운 인생,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자신도 원치 않게 허물과 실수뿐이고 욕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는 의지력이 약해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인터넷만 클릭합니다. 집중력 있게 성경도 읽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뭘 좀 할려고 하면 졸리고 벌써 잘 시간이 되어 버립니다. 새벽기도를 결심하지만 며칠하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몸이 장차 부활하여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심는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자기 몸을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을 심습니다. 이기적이고 죄악된 자기 생각이 깨지고, 고집이 없어지고 부서져서 죽어야 합니다. 즉 주님과 복음역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 열매는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서까지 부활의 때에 그토록 얻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까지 부활 때에 얻기를 바라는 바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바울은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IV. 최후의 승리(50-58)

그러면 언제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까? 51,5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십니다(살전4:16,17).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신자들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여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어떤 감격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54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한 마디로 사망에 대한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확실한 명제는 모든 인간을 죽는다

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류의 최대 원수는 죽음이었고, 죽음은 모든 사람을 지배해 왔습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한 것, 그 어떤 사람도 다 떨게 만든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비겁하고 무력하게 만들었습니까? 밤새워 몇일동안 공부하다가 코피라도 나는 것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축구를 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비명을 지르고, 오버 액션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죽기라도 할까봐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을까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죽을까봐 비굴해집니다. 위험한 일이 있으면 쉽게 물러서 버리고, 고단하면 요절할까 두려워서 주저앉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며 퇴폐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을까봐 조그만 위험이 있어도 큰일을 포기하고 능력 밖의 일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이요, 허무요 끝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 것도 이 두려움과 허무를 잊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54). 이것을 미리 바라본 사도바울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55-57절을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며 죽음에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다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망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5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앎이라”

첫째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 이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33절에서도 언급했던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한동무에게 속기 쉽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자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벗꽃이 만개한 캠퍼스를 쌍쌍이 걸어가던 커플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아쉬움으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할 일은 왜 이리 많은지요. 늘 쫓기듯이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자주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소식만 크게 들려옵니다. 당장 전세금 낼 돈도 없이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때 세상 동무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0대부터 채테크를 시작해야 한다.” “안쓰고 저축해서 빨리 종자돈을 굴려 투자해야 한다.” “전세금 올려줄 걱정 없이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 꾸러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이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자기 것만 꾸리고 욕심대로 쾌락과 죄악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위에 견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거센 비바람에도 견고합니다. 가지는 흔들릴지 몰라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2:6,7)

둘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에 가치를 두고 그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멈칫멈칫하게 됩니까? 왜 슬그머니 그만 두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볼 때 낙심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나 한사람이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실은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삶의 필요들을 채우기에도 너무나 바쁩니다. 주님의 일은 멀리보이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관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세상일을 열심히 하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유익과 욕심을 꾸리는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헛되지만 한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지 않냐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만 있다면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는 술한 고문 속에서도 오직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꺾박이나 모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는 죽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세상일은 때로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님을 위한 수고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매주 주일과 학생모임에 오기위해 버스를 두세 번 넘게 갈아타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면서도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대 편입시험에 합격하여 전대근처로 이사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사를 가지 않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린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것은 바로 주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주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장차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최고의 인생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